

기고



김재승 함평소방서 서장

작은 관심으로 실천 가능한 주택화재 예방

우리들 속담에 '기와 한 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힌다'는 말이 있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무시하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의미로 미흡한 초기 대처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택화재와 유사하다 할 수 있겠다. 전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화재 13,169건 중 주택화재는 2,746건으로 전체 대비 21%, 그중 사망자는 43%로 집계됐으며, 특히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75%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통계에서와 같이 주택화재 건수에 비해 높은 사망률, 유독 단독주

택화재 건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에 대한 해결책을 주택용 소방시설에서 찾아보려 한다. 오래된 일반주택은 소방설비가 고루 갖춰진 건물에 비해 당연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주택에는 최소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이루어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생활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경각심이 부족하거나 이러한 기초 소방시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가정은 화재위험에 24시간 노출돼 있다. 2017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일반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전국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율은 '19년 기준 56%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1978년 32%의 설치율에서 2010년 96%를 달성해 32년간 주택화재 사망률 56%가 감소했다고 밝혀 주택용 소방시설 효과를 여실히 입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효과는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드러났다. 금년 1월 발생한 함평군 월야면

주택화재에서 방에서 휴식 중에 있던 A씨가 화재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해 인명피해를 방지했던 사례로 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의 중요성이 지역에 재조명되는 순간이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기초적인 소방시설로 누구나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긴급한 상황 속 가져오는 효과는 절대 가볍지 않다.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감지기와 초기 진화에 유용한 소화기를 통해 비상시를 대비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자.

기고

봄철, 임야화재 주의해야

4월 곳곳에 봄꽃들이 만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은 무색할 만큼 사람들이 바깥활동을 나서고 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힘겹게 버텨온 만큼 지난날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들과 산이 메말라 있어 화재 발생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잡풀을 태우다가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자 불을 끄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들불이나 산불이 났을 경우에 혼자서 불을 끄기 보다는 대피 후

119로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들불화재 화재진압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들불에 불을 붙인 지 10초도 안되어 소화기로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다. 강한 바람으로 소화기의 소화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화재 확산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봄철 들불이나 산불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갈고리 하나 들고 불속으로 뛰어 드는 것은 옳지 않다. 전진터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봄철은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 등으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인명 및 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개개인의 화재경각심 고취 등 안전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김만기(담양119안전센터센터장)

기고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가정의 달 건강한 가족 회복에 나서자

가정의 달 5월이 되면서 가정과 가족이란 울타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5월은 그 어느때보다 가족의 의미를 되찾고 서로간의 사랑을 되새겨야 할 시기이지만 가정의 달 의미를 되새키기는 만인원적인 범죄가 있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단지 부모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부모를 때리거나 흥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존속살해 범죄가 연평균 60여건에 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도 최근에 나오면서 천문을

저버린 패륜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가정의 달이 무색해지고 있어 우울하기만 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가족간 패륜범죄는 한정된 공간에서 서로 같이 생활하다보니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대부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고 하니 가히 가법계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패륜범죄가 가정내 대화단절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성 같다. 지속적인 가정불화가 곧 가정 폭력의

로 이어지며 쌓인 문제가 폭발해 패륜범죄로 치닫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가정이 흔들릴 수 있다. 가정불화가 지속되면 함께 있는 자녀들이 보고 지라면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80% 정도가 가정 내 구성원 간 마찰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패륜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가정 폭력의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패륜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의 경노효친 사상도 함께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 간 패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상호간 서로 존중하는 자세와 더불어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 이순간 가족 서로 간 아끼고 보듬어야 할 문제는 없는지 가족 구성원 간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소통의 자세로 다시한번 살펴보자.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such as 1577-1366, 1399, 182, etc.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층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